

축산시황*

Korea Native Cattle News 한우소식

한우판매점 인증시대' 본격 개막

한우자조금, 인증 1호점 '화우명가' 오픈

음식점에서 우리 한우고기를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7일 한우판매인증 1호점인 '화우명가'의 오픈 시작으로 전국 12개 업소에서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우판매인증제는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과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업소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제도. 1호점 마포 '화우명가' 오픈과 함께 서울과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지역 등 12개 업소의 인증을 확정했으며, 내년까지 약 1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한우판매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현장평가와 위생수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인증 후에도 월2회 정기적인 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 방문, 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고기를 섞었거나, 둔갑 판매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인증이 취소되며 소비자들에게 가짜 한우고기를 판매했을 경우는 판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한우판매점 인증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손꼽혀 왔던 한우고기의 유통 투명화 실현

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호경 회장은 "한우판매점인증제 시행이 한우고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획기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엄격한 인증점 관리와 인증유지 감독을 통해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최종편집 : 2006/12/08]

Dairy Farming 낙농소식

2006년 결산 낙농(酪農)

'낙농대책' 표류 2년째...아쉬움 많아

올 한 해 낙농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림부가 발표한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이 논의만 거듭된 채 확정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다. 이 같은 아쉬움은 낙농현장에서 낙농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낙농산업을 견인했던 기업낙농이 속속 역사속으로 묻히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낙농의무자조금 출범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올 한 해 낙농산업을 결산한다.

흰우유 '뜨고' 가공유 '지고'

올해는 흰우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웰빙 바람과 함께 흰우유도 고급화, 기능화 추세다. 지난해 가공우유에 당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때문인지 치명적일 정도로 가공유 시장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06년 10월까지 시유, 발효유,

분유류를 포함한 국내유제품 총소비량이 258만톤으로 전년의 254만톤과 비교해 4만톤이 증가했다.

■ 의무낙농자조금 본격화

올해 5월부터 거출된 의무낙농자조금사업이 99% 이상 거출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다양한 우수소비행사가 이뤄졌다. 올해 거출액 50억여 원에서 내년도 사업이 84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낙농업계 전반에서 학교우유급식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됐으며 홍보전문인들을 영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화된 우수소비행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소비계층의 감소, 대체음료의 범람에 따른 소비량을 감소를 막기위한 특단의 새로운 소비홍보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 로봇착유기 시대 '개화(開化)'

올해 3개사의 로복착유시스템도입으로 한국낙농도 바야흐로 첨단시스템의 시대를 맞았다. 현재 동조물산, 바리오, 드라발 등의 3사에서 판매하는 로복착유시스템 3가지 모델이 모두 국내 목장에 설치될 전망이다.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1일 착유회수 증가로 산유량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유방염발생 감소 등의 이유로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농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복착유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홀스타인품평회 지지체 확산

올해 홀스타인 품평회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시군 지역에서 홀스타인 품평회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로 인해 전국규모 2006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예년대회와는 보기 드물게 질적 양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라는 평가다.

■ 국제낙농교류 토대 구축

한국이 세계낙농연맹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전세계 낙농분야 학술 및 정보의 직접 활용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낙농산업이 체계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낙농무대에서 우리 낙농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사카자키 파문

유업체들은 올해 조제분유에서 나온 사카자키균이 검출로 조제분유판매율이 감소한데 이어 저출산에 따른 매출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카자키균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에 따른 업계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업계전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6/12/27]



■ 2006년결산 양돈(養豚)

호황속 불황에 농가 '양극화' 심화

양돈업계의 2006년은 지난해에 이어 고돈가기조가

축산시황*

유지된 반면 돼지소모성질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가들은 여전히 호황속의 불황을 실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된 한해였다. 실제로 돼지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 지난 9월 현재 9백37만두를 기록하며 '03년 수준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PMWS와 PRDC, PRRS, PED 등 복합질병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올해 총 돼지도축두수는 오히려 감소, 지난해 (1천3백50만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3백만두선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가격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해 올해 평균 돈가는 지난해 보다 지육kg당 1백원 정도가 낮은 3천6백~3천6백50원선에 형성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는 양돈자조금 사업이 도축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납입률 93% 이상을 유지하며 정착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 한해는 국내 양돈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한해로 주목받기도 했다. 우선 가축분뇨를 '자원'의 시각에서 접근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공식 공포되는데다 지난 11월28일 이뤄진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양돈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12년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방침과 함께 본격적인 감축이 이뤄짐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해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학교단체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태가 과학적 검증없이 돼지고기를 주범으로 몰아가 큰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으며 항생제 잔류문제가 어김없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된 한해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생산자단체

인 대한양돈협회가 '양돈환경규범 제정'을 통해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자정활동 돌입,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일호 기자 L21ho@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6/12/27]



■ 2006년 결산 양계(養鷄) - 육계(肉鷄)

'자조금' 관리위 선출 이견... 출범 끝내 무산

올 육계업계는 여러가지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우선 업계는 물론 관련단체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 진행돼 왔던 육계자조금이 끝내 출범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HPAI 발생으로 인해 소비촉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는다. 육계자조금은 지난 2005년 10월 육계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 4월과 10월에 잇따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거출과 거출금액만을 결정하고 관리위원 선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끝내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올해 육계업계를 시끄럽게 했던 문제는 불량 병아리 문제와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육계업계는 불량 병아리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종계장에서의 티푸스 백신 접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등 명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육계계열화업계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업계에 1백83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육계업계를 당혹스럽게 했지만 예상 밖에 적은 26억여 원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논의가 '담합행위'로 간주되는 선례가 됐던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HPAI의 재발이 육계업계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북 익산에서 3년만에 HP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육계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 닭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HPAI로 인해 육계농가들은 산지 닭값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병아리 공급량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올해 육계업계는 산적한 현안문제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관심속에서 지내왔지만 아직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넘기는 사안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하락없어

종계업계는 육계 계열사들의 공격적인 경영과 생산성 악화에 인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면에서는 무난한 한해였다. 올초 종계업계는 지난해 종계입식수수가 예년에 비해 많았던 탓에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인해 우려했던 만큼의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종계업계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것은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 문제를 놓고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또한 원종계 수입 자율쿼터제가 깨진 후 계육업계 2위 업체인 마니커가 본격적으로 원종계 사업에 뛰어들 것을 비롯해 원종계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도 종계업계의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 종계업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종계입식수수가 5백29만수로 전년 동기대비 20%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5억4천8백50만수로 전년 대비 무려 21%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불황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올해 종계 평균 산란률은 표준산란률 대비 10%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산증가 요인을 상쇄시킴으로써 불황이 비껴나가게 됐다.

특히 11월에 발생한 HPAI로 하림의 종란이 대량으로 폐기되는 변수가 또다시 발생해 연말 실용계 병아리값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올해 종계업계에서 가장 많은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가금티푸스 백신 문제이다.

지난 몇 년간 백세미에 대한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종계업계의 불만이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종계업계는 가금티푸스로 인한 종계장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으로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결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산란종계의 경우 연초 유럽에서의 AI 발병으로 인해 PS종계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종계수급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하반기에 수입이 재개되면서 승통을 트이게 됐다.

축산경제신문 이일호 기자 L21ho@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6/12/27]

축산시황*

양록소식

Deer Breeders

■ 치아검사 통해 '우수사슴' 조기발굴
농진청 축산연구소, 양록협회에 기술 이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치아 검사를 통해 우수한 사슴을 조기 선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24일 전북 남원 소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강당에서 한국양록협회에 기술을 이전했다.

지난 2000년부터 우수 사슴의 능력정보를 수집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 축산연구소는 이번에 개발된 사슴의 치아 교체시기를 통해 2세와 3세의 어린시기에도 우수 사슴 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축산연구소 윤상기 소장은 "지금까지는 '사슴 선발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슴을 선발해오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지만, 나이 감정기술을 활용한다면 2세와 3세의 우수 사슴 선발이 가능하게 돼 사슴개량의 가속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기술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omy@chukkyung.co.kr

[최종편집 : 2006/11/29]

양봉소식

Bee-Farming

■ 도심에서 우리 벌꿀 홍보행사

양봉협회가, 항생제 파동 극복... 소비자 신뢰회복 기대
양봉협회가 28일 동대문 두산타워 일대에서 대대적인 벌꿀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는 최근 항생제 파동으로 국내산 벌꿀 판매가 부진해 전국의 양봉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벌꿀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항생제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벌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벌꿀 홍보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순수 자연산 벌꿀의 시식회와 무료 증정행사 등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벌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dilee@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6/11/27]

